

# 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박보람\*\*·하재영\*\*\*

##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Seoul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Concentrated Areas of Youth\*

Boram Park\*\*·Jae-young Ha\*\*\*

**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를 기반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하려고 파이썬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을 시각화하였다.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자치구(행정동)별 분포 시각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최대-최소 정규화) 및 가중치 적용으로 청년인구/청년고용복지서비스 밀집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밀집지역 및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지역을 기반으로 도출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확인됐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치구별 청년 거주인원 수와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가 서로 미스매치(Mismatch)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서울시 청년의 실제 거주 및 주된 생활반경(자치구)에 기반을 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효과성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효용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및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간 연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를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격차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앞으로 연구를 위해 청년인구수 외 다양한 청년고용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영향요인 고려와 분석데이터 범위 확대, 지리적 접근성 외 다각도의 서비스 접근성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지리적 접근성,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ABSTRACT** : Based on the population living in Seoul, this study visualized the gap between youth and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by districts using Python, for analyzing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Seoul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The visualizations of youth and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in Seoul were conducted, and the districts where youth population/employment welfare services were concentrated were derived. The top five areas with high gap were followed by Gwanak-gu, Songpa-gu, Gangseo-gu, Gangdong-gu, and Eunpyeong-gu, while the bottom five were followed by Seongbuk-gu, Jongno-gu, Dobong-gu, Seongdong-gu and Mapo-gu. Policy suggestions first, it need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living youth population of Seoul.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service ut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nk between online and offline services and link among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in Seoul. Third, the results sh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minimize the gap between youth and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of districts. Finally, to consider the factors influencing accessibility of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to expand analysis data, and to examine other dimensions of accessibility were suggested.

**KeyWords** : Seoul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 Geographical Accessibility, University Job Center, Youth Zone, Job Cafe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20 서울연구논문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입니다.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Ph D. Candidate, Dept. of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Ph D. Student, Dept. of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교신처자 (E-Mail: chal0060@snu.ac.kr, Tel: 02-880-4839)

## I. 서론

국내 청년들은 N포 세대라고도 지칭될 정도로, 일자리,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등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10.7%를 기록했으며(통계청, 2020. 06. 30), 청년 확장실업률<sup>1)</sup>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대치인 26.0%까지 증가하여, 국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을 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다. 2012-2016년간 국내 청년층 우울증 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전체 세대 평균 증가율 1.6%보다 3배 가까이 월등하게 나타날 정도로 청년층은 심리적 건강 문제도 겪고 있다. 이처럼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경험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행복감,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문희, 2015).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의 삶은 어떠한가?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4%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김진하·황민영, 2019).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 316만 3천명(2017년 하반기 기준) 중, 15-39세 청년이 123만 3천명으로 약 39%를 차지하며, 활동상태별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한 결과 '쉬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가구의 73.2%가 서울시 평균 소득 이하라는 통계 수치에서 서울시 청년들의 열악한 고용-복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고, 평생학습 등의 자기계발 욕구와 스터디,

친목 등 커뮤니티 활동 비율이 높아 사회적 참여욕구가 높다는 역동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김선기 외, 2019). 이를 볼 때,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청년이 단순한 일자리 '지원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청년의 자립적인 삶 지원을 위하여 청년 친화적이고 접근성 높은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20),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03. 22. 시행)를 제정하였다. 이는 이직 및 취·창업준비 청년, 경력단절 청년여성, NEET 청년 등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에게 보다 더 친숙한, 접근성 높은 청년공간을 신설 및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역 격차 없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2019)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98개에 불과하여 국민의 고용서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지역에서 향후 1시간 이내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1) 확장실업률(%)은 실업을 산정 대상을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확장하여 구직 청년층의 실제 체감도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중 하나로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으로 산출된다(통계청 2020년 12월 고용동향).

있도록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 확대 계획을 밝혔다. 청년공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자치구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내 외각에 위치하는 등 지역별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유입 및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청년허브, 2017).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및 지역 내 청년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지리적으로 대학 내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된 이용자가 재학생에 한정되어 현실적으로 특정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정진철 외, 20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국내의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CEDEFOP, 2018). 핀란드의 TE-Service, 스톡홀름 대학교 등 유럽에서는 ICT를 활용하여 지역 격차 없이 청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리적 서비스 격차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초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로의 유입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재성 외, 2019). 대면 서비스는 비단 취업정보 획득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취업, 심리, 주거 등 종합 상담)와 또래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합적인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연구 대상 및 접근성 측정 방식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대상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노인층 등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전반적인 생활인프라(의료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이 이뤄졌다(장수지, 2017; 마시현 외, 2018). 접근성 측정방식 측면에서 보면, 장수지(2017)는 도보로 인한 서비스기관 접근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을 측정했으며, 유해연·박연정(2019)은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 10곳의 지리적 위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서울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일부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점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대비 청년공간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연구방법 측면의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도시행정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들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를 기반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① 서울시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Where)에서 살고, 활동하고 있는가?, ②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들은 어디(Where)에 위치해있는가?, ③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지역별 지리적 접근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다. 연구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세 가지의 접근방식을 취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및 동별) 청년층의 분포를 분석하여, 청년층 밀집지역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주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들(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카페)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여,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를 도출했다. 셋째, 청년 밀집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

지역 간 점수 격차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 밀집지역 및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간 간극(Gap)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가 청년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를 기반으로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일자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점을 넘어, 도시행정차원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역별 격차 없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 1. 서울시 청년의 특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주거, 금융, 교육, 사회 참여 등) 현황은 어떠한가?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청년들의 사회 이행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띄고 있다.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가 2008년 492만 2천 명에서 2017년에는 512만 6천 명으로 증가되었으나, 15-29세의 청년 취업자 수는 2008년 101만 7천 명에서 2017년에는 87만 1천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

(2017년 하반기 기준) 316만 3천명 중 15~29세 인구가 93만 7천 명, 30~39세 인구는 29만 6천 명으로 나타나 서울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김선기 외, 2019). 서울시 청년들이 첫 취업<sup>2)</sup>까지 평균 43.0개월이 걸리며, 첫 취업 후 자발적 이직을 전체의 87.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의 주된 이유는 근무조건 불만족, 적성 불일치, 보수, 승진 불만, 직장, 직무 전망 부재 등이라고 응답했다(김진하·황민영, 2019).

한편,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청년들의 불안정성과 주체성이 공존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가구 중 48.1%가 1인가구였으며, 청년가구의 73.2%가 서울시 평균 소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5명 중 1명꼴로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대출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금융현황을 보여준다(금융위원회, 2017). 그러나 서울시 청년들은 고등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의 목적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49.0%)', '능력과 소질 계발(35.4%)을 위해' 라고 인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청년들은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44.5%가 친구를 통해 대처하며, 꿈을 실현하는 데에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변미리 외, 2018).

종합해보면, 서울시 청년들은 복합적이고 불안정이며, 장기적인 고용과 복지 차원의 생애과업을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과 사회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

2)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생애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학교 졸업 또는 중퇴 시점에서 근무시작 시점까지를 계산하여 산출함(김진하·황민영, 2019).

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 중심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주거, 금융, 교육, 심리상담,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현황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다양한 고용복지 차원의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용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확충 및 서비스 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① 활동(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서울시, 2020)을 기반으로 접근성 높은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무중력시대’라는 청년공간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였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상담과 취업스터디 등 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카페를 2016년부터 확충하여 제공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는 서비스대상에 청년을 포함하며,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 및 실업자의 고용, 복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부 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취업상담 및 스터디룸 등을 설치하는 등 청년 특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대학 내 설치되어 대학 재학생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 대학 등에 위탁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일자리카페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공유공간(coworking space) 등과 연계하여 기관수를 확대함으로써 이용대상이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이용료가 유료 및 일부 무료로 제공되는 등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운영주체, 제공 프로그램, 주요 대상자,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 차이를 지닌다(표 1)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청/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대상이 전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어 청년만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지원 뿐 아니라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교 재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졸업 후 취업준비생 및 청년 NEET,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모든 청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3개 중 7개 대학을 거점형으로 지정하여, 타 대학 학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년공간은 고용청/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개별 기관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게 나타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다양한 청년커뮤니티 활동과 공간 제공 서비스 특화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다. 대면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표 1〉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주요 기관 비교

구 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설립연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구분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운영 주체	고용청/고용센터	●	9/9			●	16/16		
	지방자치단체					●	16/16		
	공공기관							●	62/62
	대학			●	14/14			●	62/62
	민간기업 및 단체					●	16/16	●	62/62
프로 그램	취업정보 제공	●	9/9	●	14/14	●	16/16	●	62/62
	취업역량 강화	●	9/9	●	14/14	●	16/16	◐	37/62
	상담(취·창업지원)	●	9/9	●	14/14	●	16/16	◐	35/62
	상담(주거·금융)	●	9/9			●	16/16	○	2/6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공	●	9/9						
	청년 커뮤니티 활동					●	16/16	◐	40/62
	활동공간 제공	○	1/9	●	14/14	●	16/16	◐	43/62
주요 대상자	전 연령(청년 포함)		대학생		청년		전 연령		
서비스 비용	무료		무료		무료		일부 유료		
서울시 운영 기관 개수	9		14		16곳		62곳		

자료출처: 정진철 외. (2020). 다차원적도법을 활용한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 포지셔닝 연구. 직업과 자격 연구, 9(1), 165-189. 재구성.  
고용노동부. (2020).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2021). 일자리서비스: 일자리카페.

○: 해당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전체 15% 미만임, ◐: 해당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전체 70% 미만임, ●: 해당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전체 100%임.

장기화됨에 따라 비단 취업정보 획득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취업, 심리, 주거 등 종합 상담)와 또래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청년기본법(2020. 08. 05) 제2항 기본이념에서 제시한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일자리카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 친화적인 카페 공간을 제공되며, 서울시 내 72곳으로 가장

많은 개수가 운영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청년들에게 지리적 접근성이 비교적 가장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는 온라인 청년공간, 서울청년포털,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확인 결과, 대학일자리센터 내 Job카페,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등을 포괄하고 있고, 청년의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년만이 아닌 일반인 모두 이용가능하며, 단순 공간대여 등 일부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음에도 일자리카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공간의 경우 서울시 청년허브(2017)의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3년

까지 무중력지대를 25개구별로 전부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중력지대 당면과제 중 '조정상의 과제'로 기초 지역조사 등 조성을 위한 사전 고려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 분포에 따라 청년고용복지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설립 및 기관 간 연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 3.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재성 외, 2019). 사회서비스 이용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하게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박세경, 2014). 접근성(Accessability)은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이 필요 욕구를 인식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접근하고, 실제 이용하여 그 결과가 산출되는 일련의 과정이다(Levesque et al., 2003). 이는 서비스 접근성이 공간 차원의 지리적 접근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박세경, 2014).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서비스 운영 성과 평가, 서비스 내용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관심은 미진하였다(유길상, 2006; 윤윤규, 2014; 김고은, 2016;

이철선 외, 2016; 이철선·임성은, 2016; 정동열 외, 2016; 정동열 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청년고용복지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TE-Service는 온라인에서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지역의 TE-Office에서 필요한 상담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과 고용주 간 온라인 채팅, 컨퍼런스 콜을 통한 면접 진행 등 ICT를 활용하여 지역 격차 없이 청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중요성을 반영하듯 청년 관련 정책 및 종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포털(<https://youth.go.kr>)이 2019년에 개설되었다. 온라인으로 취업, 교육, 금융, 상담 등 종합서비스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접하고, 사후서비스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오프라인 서비스 예컨대,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등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면대면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재성 외, 2019).

위와 같은 국내 청년고용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접근성 파악은 서비스 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확인하여 지리적 격차 완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청년들의 심화된 면대면 맞춤형 서비스, 소규모 활동 공간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지리적으로 균질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청년기본법(2020. 8. 5.) 제2조 기본이념 이행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 수준을 확인하여 인근 지역별 유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 및 역할 분담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공서비스기관의 서비스가 지리적 격차 없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왔다. 박진규·김인(2016)은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 패턴을 분석한 후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보편적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입지형태를 가지는 공공도서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접근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져오는 패턴임을 발견하였다. 장수지(2017)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사회참여 수준은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마시현 외(2018)는 서울시 취약계층 노인 밀집지역을 분석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장기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을 시각화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은 취약지역을 시각화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주로 노인층 등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반면, 청년의 전반적인 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장수지(2017)는 도보로 인한 서비스기관 접근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을 측정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을

수록 노인의 정신건강에 정(+)의 매개를 통해 사회참여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유해연·박연정(2019)은 서울시 소재 청년공간 10곳의 지리적 위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서울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점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대비 청년공간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연구방법 측면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연구의 관점을 도시행정 측면의 접근성으로 확장하고,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를 기반으로 청년 밀집지역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측정 및 시각화하여 지리적 접근성 격차를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균질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data)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고용복지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청년의 경우,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청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20-34세 서울특별시 청년인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는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및 청년공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연구 자료 주요 정보 및 활용 목적

	구분(출처)	데이터 주요 정보	데이터 활용목적
1. 청년 밀집지역 파악	서울시 청년 주거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 자료명: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자치구별) 통계, 기준연도: 2020년 1분기)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20-34세) 주민등록인구 수	청년의 주거 밀집 지역 파악
	서울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 자료명: 자치구단위 서울생활인구(내국인), 기준기간: 2019.08.23.-2020.08.22., 1년)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수	청년의 생활 밀집 지역 파악
	서울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동별)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명: 서울시 행정동 단위 유동인구(KT) 기준시점: 2018년 4월 1일)	(동별) 서울시 유동인구 현황 (*2018년 4월 동별/연령대별 유동인구 통계 데이터)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파악
2.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	서울시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자치구별) (출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준: 2020년 8월)	(동별)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 및 기관수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분포 파악
	서울시 소재 대학일자리센터(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대학일자리센터 위치 및 기관수	
	서울시 소재 일자리 카페(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일자리 카페 위치 및 기관수	
	서울시 소재 청년공간(무중력공간) (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공간 위치 및 기관수	

이러한 연구대상에 따라, 연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청년의 밀집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 주거인구,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생활인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생활인구는 조사시점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하는 것(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KT BigData 사업지원단, 2018)으로, 주거인구와 경제활동인구/주간인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및 조사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청년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 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의 유동인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 카페를 주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 및 기관의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관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9곳, 대학일자리센터가 14곳, 청년공간이 16곳, 일자리카페가 62곳이다. 단, 서울시 소재 일자리카페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는 72곳이나, 원자료 확인 결과 청년공간과의 데이터 중복 및 이용대상, 프로그램 측면에서 청년 특화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스터디카페 10곳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 총 62곳이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

되었음을 밝힌다. 연구 자료의 주요 정보 및 활용 목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인구의 밀집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인구(주거/생활/유동인구) 분포 시각화와 청년인구(주거/생활) 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청년 밀집지역 파악을 수행한다. 청년인구 분포 시각화에서는 주거, 생활, 유동인구를 각각 서울시 지도 상에 시각화함으로써 인구 밀집지역 상/하위 5개 지역을 산출하고 비교한다. 또한, 각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청년인구의 밀집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각각을 표준화하고(표준화 산식:  $x - \min(x) / \max(x) - \min(x)$ ), 이를 통해 도출된 표준화 값들에 각각 0.5씩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청년인구 표준화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밀집지역을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유동인구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가중치 적용 및 표준화값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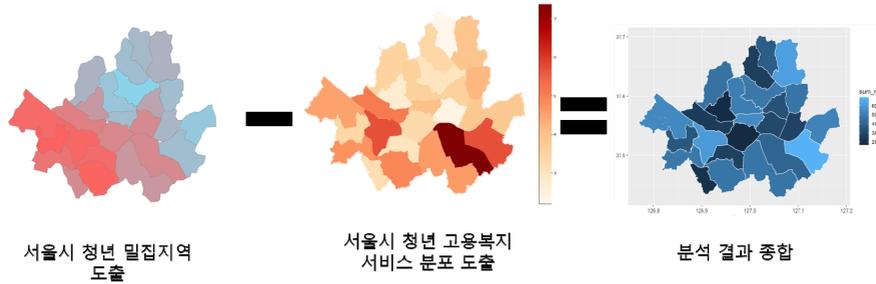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계산에서 활용된 '표준화'란 여러 자료의 척도(scale)가 서로 다를 경우에 자료의 특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동일한 정도의 척도(scale)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주거인구와 생활인구는 각각 자료의 범주가 다른 상황이므로 자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화 방식은 최소-최대 정규화와 Z-점수 정규화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최대 정규화는 Z-점수 정규화 방식에 비해 이상치를 처리하기 어려운 반면, 모든 자료의 척도(scale)는

동일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마시현 외, 2018).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자료는 이상치의 문제가 크지 않으므로 동일한 척도로 자료를 변환해주는 최소-최대 정규화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거인구와 생활인구는 각각 청년층의 주거 및 활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산된 표준화값에 0.5씩 곱하여 새로운 표준화 값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각 기관별 분포 시각화와 기관 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파악하였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 시각화에서는 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는 한편, 대로변 inside/outside 분포도 함께 확인하였다. 특히 대로변 inside/outside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관으로의 접근성을 수치적, 시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분포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문헌 분석을 통해 기관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표준화( $x - \min(x) / \max(x) - \min(x)$ )하고, 표준화값에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표준화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을 통해 분석된 청년 밀집 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 간의 간극(gap)을 계산하여(청년 밀집지역 표준화값(x)-청년 고용복지서비스 표준화값(y)), 간극점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고용복지서비스가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을 도출 및 시각화한다. 최종적인 연구 결과 도식(안)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 결과 도식(안)



〈표 3〉 분석방법

분석방법		활용자료	활용 Tool / Package
1. 청년 밀집지역 도출	1) 청년 인구 분포 시각화 2) 청년 밀집지역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기준(주거지), 생활인구 및 청년 유동인구 기준으로 청년 인구 분포 도출 및 시각화</li> <li>청년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를 각각 표준화한 후, 도출된 값에 0.5씩 곱하여 새로운 표준화값을 도출  <b>※ 표준화 산술식</b>  <math display="block">\frac{x - \min(x)}{[\max(x) - \min(x)]} * 100</math> <math display="block">x = \text{자치구별 주거인구, 생활인구}</math> </li> <li><b>※ 가중치 적용 산술식</b>  <math display="block">x1 * 0.5 + x2 * 0.5 = y</math>                     (x1= 주거인구, x2=생활인구)                 </li> </ul>	서울시 청년 현황 (자치구별/동별)  Python (Pandas, Folium), QGIS3
2.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분포지역 도출	1)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분포지역 시각화 2)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분포지역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밀집지역 도출 및 시각화</li> <li><b>(지역 분포)</b>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카페의 지역적 분포 도출 및 시각화</li> <li><b>(대로변 inside/outside 분포)</b>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카페의 대로변 근처 유무 확인 및 수치화/시각화</li> <li>문헌 분석을 통한 개별 고용복지서비스 간 가중치 설정</li> <li>각 기관별 기관수를 표준화한 후, 도출된 값에 가중치 적용. 이를 통해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밀집지역 도출  <b>※ 표준화 산술식</b>  <math display="block">\frac{x - \min(x)}{[\max(x) - \min(x)]} * 100</math> <math display="block">x = \text{자치구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기관수}</math> </li> <li><b>※ 가중치 적용 산술식</b>  <math display="block">x1 * \text{가중치}(x1) + x2 * \text{가중치}(x2) + x3 * \text{가중치}(x3) + x4 * \text{가중치}(x4) = y</math>                     (x1=고용복지플러스센터, x2=대학일자리센터, x3=일자리카페, x4=청년공간)                 </li> </ul>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청년공간  Python (Pandas, Folium),
3.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도출	청년 밀집지역 및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간 간극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밀집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간 점수 격차를 활용하여 해당 대상인 청년들에게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극(gap)점수 도출 및 시각화</li> </ul>	1번 및 2번 분석 결과 활용  Python (Pandas, Folium),

분석을 위해서는 Python(Pandas, Foilum), QGIS3을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경계 지리 정보(JSON/shp file)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상술한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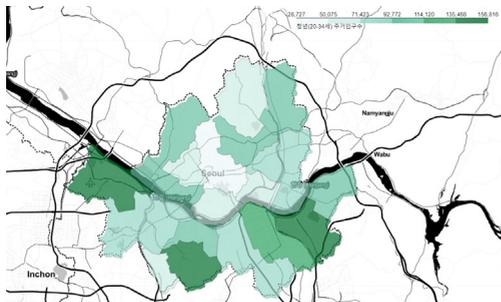
## IV. 결과 및 고찰

### 1.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

#### 1)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인구의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및 <표 4> 참조).

<그림 2>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주거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자료명: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자치구별)통계, 기준연도: 2020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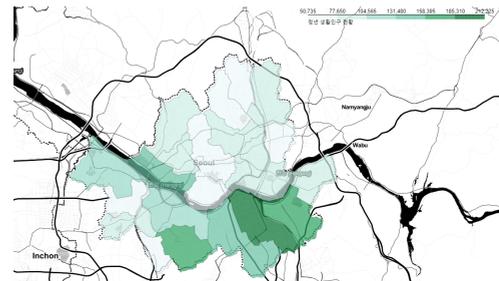
<표 4>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주거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1	관악구	156,816	1	중구	28,727
2	송파구	150,237	2	종로구	33,562
3	강서구	137,042	3	용산구	51,884
4	강남구	115,643	4	금천구	54,634
5	노원구	104,611	5	강북구	62,209

#### 2) 서울특별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생활인구의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양천구, 중랑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및 <표 5> 참조).

<그림 3>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자료명: 자치구단위 서울생활인구(내국인), 기준기간: 2019.08.23.-2020.08.22.)

<표 5>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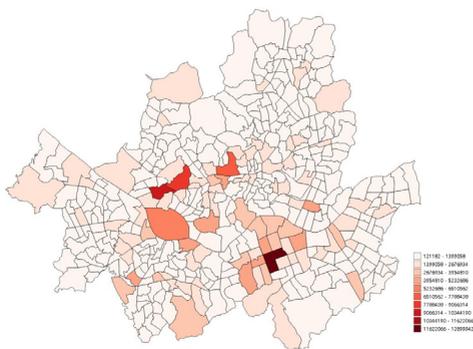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1	강남구	212224.9	1	도봉구	50735.29
2	송파구	163483.3	2	금천구	55400.32
3	관악구	158887.7	3	강북구	58359.9
4	마포구	137117.9	4	양천구	69278.66
5	서초구	135418.5	5	중랑구	70824.04

주: 생활인구 수는 표본조사를 통한 추정값으로, 소수점 1자리 수까지 반영.

### 3) 서울특별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행정동별)

서울특별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동인구의 상위 5개 지역은 역삼1동(강남구), 서교동(마포구), 신촌동(서대문구), 종로1,2,3,4가동(종로구), 여의동(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창신3동(종로구), 홍제2동(서대문구), 신길4동(영등포구), 난향동(관악구), 청림동(관악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및 <표 6> 참조). 특징적인 것은, 유동인구 상위 5위로 확인된 여의동의 표준화값(45.0)은 1위로 확인된 역삼1동의 표준화값(100.0)의 절반 이하라는 점이다. 즉, 서울시의 청년 유동인구는 역삼1동 등의 일부 지역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유동인구 상위 2개 지역은 강남구와 마포구로 각각 생활인구 상위 1순위, 4순위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자료 활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지역으로 산출되는 강남구, 마포구 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유동인구 현황(행정동별)



출처: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자료명: 서울시 행정동 단위 유동인구(KT), 기준시점: 2018.04.01.)

<표 6>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유동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행정동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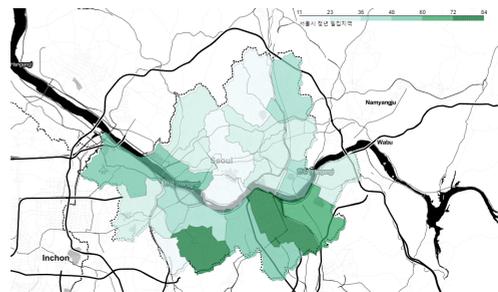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행정동명	표준화 값	순위	행정동명	표준화 값
1	역삼1동	100	1	창신3동	0
2	서교동	75.89	2	홍제2동	0.01
3	신촌동	67.61	3	신길4동	0.25
4	종로1,2,3,4가동	58.54	4	난향동	0.26
5	여의동	45.0	5	청림동	0.26

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반출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동별 표준화 값으로 제시

### 4)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자치구별)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의 수치를 각각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값에 0.5씩 곱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수치를 활용하여 청년의 밀집지역을 도출하였다(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유동인구는 해당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이를 통해 확인한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중구, 종로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및 <표 7> 참조.

<그림 5>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밀집지역 시각화(자치구별)



〈표 7〉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 값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 값
1	강남구	83.9	1	중구	6.9
2	관악구	83.5	2	종로구	9.5
3	송파구	82.3	3	금천구	11.6
4	강서구	64.4	4	도봉구	13.9
5	마포구	51.9	5	강북구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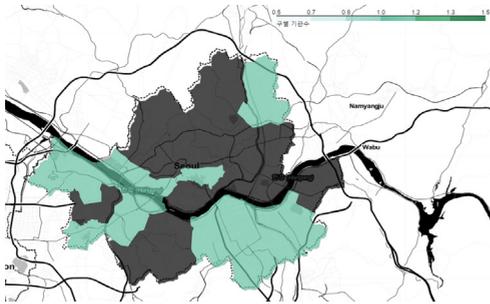
## 2.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

### 1)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별 현황 (자치구별)

#### (1)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자치구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 수는 9개이며 9개 자치구에 1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및 〈표 8〉 참조).

〈그림 6〉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자치구별)



출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표 8〉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지역분포(총 9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기관수
1	강남구	서초구	1
	관악구	송파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중구	
	마포구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관은 총 7개로 전체의 77.8%정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 및 〈표 10〉 참조).

〈표 9〉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자치구명	대로변 inside/outside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inside 비율(%)
강남구	1	0	1	100
강서구	1	0	1	100
구로구	1	0	1	100
노원구	1	0	1	100
마포구	0	1	1	0
서초구	1	0	1	100
송파구	0	1	1	0
영등포구	1	0	1	100
중구	1	0	1	100
소계	7	2	9	77.8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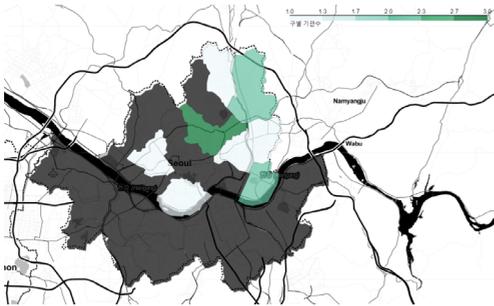
〈표 10〉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강남구, 마포구)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강남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마포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마포구)

(2) 대학일자리센터(자치구별)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수는 12개이며 8개 자치구에 최대 3개, 최소 1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및 [표 11] 참조). 특징적인 것은, 대학 일자리 센터는 대다수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림 7〉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현황(자치구별)



자료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1〉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지역분포(총 9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기관수
1	성북구	3
2	광진구	2
3	도봉구	1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대학일자리센터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학일자리센터는 대로변 outside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이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개념상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대학교 내부에 해당 기관이 위치한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인접하기가 어렵고 서비스의 대상이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만큼 대로변 outside에 위치한다고 하여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자치구명	대로변 inside/outside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inside 비율(%)
광진구	0	2	2	0
노원구	0	2	2	0
도봉구	0	1	1	0
동대문구	0	1	1	0
서대문구	0	1	1	0
성북구	0	3	3	0
용산구	0	1	1	0
중랑구	0	1	1	0
소계	0	12	12	0

대로변 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관을 광진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대로변 outside 현황(광진구,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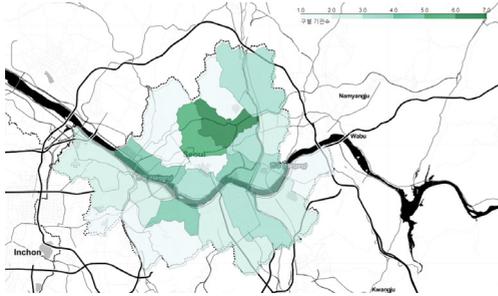


(3) 일자리카페(자치구별)

일자리카페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수는 62개이며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및 〈표 14〉 참조). 구체적으로, 일자리카페 밀집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성북구, 종로구, 동작구/마포구/성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지역은 총 8개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각 자치구당 1개의 기관 분포)로 나타났다.

〈그림 8〉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현황(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4〉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밀집지역 상위 5개 지역 및 하위 8개 지역(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하위 8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기관 수	순위	자치구명	기관 수
1	성북구	7	1	강동구	서대문구
2	종로구	5		강북구	은평구
3	동작구	4		관악구	중구
	마포구			구로구	-
	성동구			금천구	-

일자리카페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관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양천구/서초구/관악구, 노원구, 종로구 순이었으며, outside에 위치한 기관 비율이 높은 하위 5개 지역은 중랑구/중구/은평구/서대문구/도봉구(inside에 위치한 기관 0개)로 확인되었다(〈표 15〉 참조).

〈표 15〉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inside 비율 상위 5개 지역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자치구명	inside 비율 상위 5개 지역			inside 비율 (%)	자치구명	outside 비율 하위 5개 지역			inside 비율 (%)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양천구	2	0	2	100.0	중랑구	0	2	2	0.0
서초구	2	0	2	100.0	중구	0	1	1	0.0
관악구	1	0	1	100.0	은평구	0	1	1	0.0
노원구	2	1	3	66.7	서대문구	0	1	1	0.0
종로구	3	2	5	60.0	도봉구	0	3	3	0.0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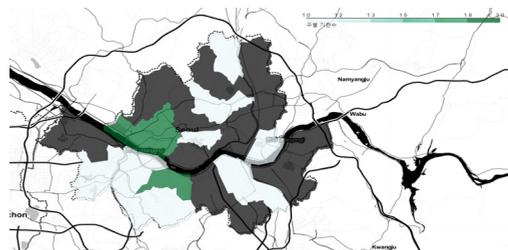
〈표 16〉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대로변 in/outside 현황(양천구, 중랑구)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양천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중랑구)
피치스터디카페(양천구)	서일대학교 Job 카페(중랑구)

(4) 청년공간(자치구별)

청년공간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 수는 16개이며 13개 자치구에 최대 2개, 최소 1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및 〈표 17〉 참조).

〈그림 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현황(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지역분포(자치구별)

지역분포(총 8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기관수
1	동작구	마포구	2
	서대문구		
2	강남구	도봉구	1
	관악구	성북구	
	광진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중구	

청년공간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관은 총 12개로 전체의 75% 정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8〉 및 〈표 19〉 참조).

〈표 1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지역분포(자치구별)

자치구명	대로변 inside/outside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inside 비율(%)
관악구	1	0	1	100
구로구	1	0	1	100
금천구	1	0	1	100
동작구	1	1	2	50
마포구	1	1	2	50
서대문구	2	0	2	100
광진구	1	0	1	100
성북구	1	0	1	100
도봉구	0	1	1	0
영등포구	1	0	1	100
양천구	0	1	1	100
강남구	1	0	1	100
중구	1	0	1	100
소계	12	4	16	75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 (관악구, 도봉구)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관악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도봉구)
	
청년공간 이음(관악구)	도봉구민청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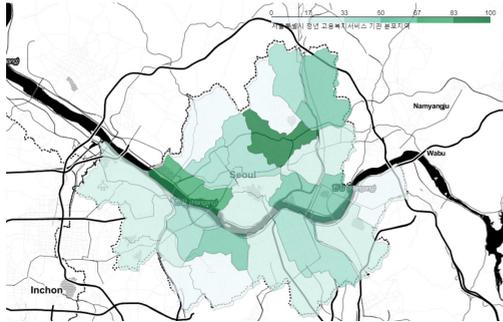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자치구별)

우선,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기관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별 가중치는 〈표 3〉과 같이 청년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냐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프로그램 유형(취업역량, 취업정보, 상담, 실업급여, 청년커뮤니티, 공간 제공)별로 4개의 주요 서울시 청년고용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제공 정도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음’(0.33), ‘일부 제공함’(0.66점), ‘대부분 제공함’(1.0)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프로그램 제공 정도 총점을 구한 후 기관별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관별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고용센터(0.20), 대학센터(0.19), 청년센터(0.32), 일자리카페(0.28)로 도출되었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 및 기관별로 표준화 값을 계산하고, 표준화된 값에 앞서 도출한 기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수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 지역 상위 5개 지역은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강동구/강북구/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및 <표 20> 참조).

<그림 10>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시각화(자치구별)



<표 20>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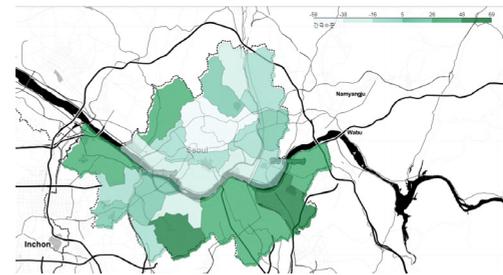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값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값
1	성북구	100.0	1	강동구	0.0
2	마포구	74.7	2	강북구	0.0
3	동작구	65.8	3	은평구	0.0
4	광진구	56.0	4	관악구	14.2
5	성동구	51.6	5	금천구	14.2

### 3.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도출

앞서 도출된 청년 밀집지역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최종 표준화값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점수를 도출하였다(청년 인구 밀집지역 표준화값 -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표준화값). 이를 통해 확인한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및 <표 21> 참조). 즉, 상위 5개 지역에 해당되는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더 적게 공급되고 있으며, 하위 5개 지역에 해당되는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림 11>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 시각화(자치구별)



※ 간극점수 > 0: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부족, 간극점수 = 0: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일치, 간극점수 < 0: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과잉

<표 21>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 점수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값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값
1	관악구	69.3	1	성북구	-59.3
2	송파구	61.0	2	종로구	-40.23
3	강서구	43.0	3	도봉구	-33.7
4	강동구	38.0	4	성동구	-24.2
5	은평구	37.5	5	마포구	-20.4

주: 청년 밀집점수 산출시, 청년 유동인구는 제외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들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를 기반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을 목적으로 Python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을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밀집지역 및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을 기반으로 도출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치구별 청년 거주인원수와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가 서로 미스매치(Mismatch)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악구 등 간극이 높은 상위 지역들은 자치구별 청년인원수는 많으나, 그에 걸맞는 서비스기관이 자치구내에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청년1인 가구 등이 관악구, 송파구 등에 증가하게 되면서, 해당 자치구의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증가된 청년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성북구 등의 간극 하위 지역들은 청년 인원수 대비 서비스 기관 분포가 더 많음을 의미하는 간극이다. 이는 서울시 소재 대학 총 30개 중 한강 이남에 위치한 7개 대학 이외 나머지 23개 대학은 한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이 초기에 대학생 중심으로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책 차원에서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청년의 실제 거주 및 주된 생활반경(자치구)에 기반하여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효과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자치구별 청년 거주 및 생활인구수와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 간의 간극(Gap)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자치구 순위를 도출하였다. 청년실업자 및 NEET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정 수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활동반경이 주거공간과 PC방,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 내 생활시설일 것으로 추론할 때, 이 연구는 청년실업자 및 NEET에게 접근성이 높은 청년고용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를 파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별 거주인구 및 생활인구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충분성을 검토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할 경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효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와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간 연계 확대 및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 자치구내 기관 간 연계를 넘어, 자치구별 청년 밀집 및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강화와 인근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의 예산 및 지리적 여건의 한계로 고용복지서비스기관 신축 등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청년포털 혹은 지자체 차원의 블로그 등 SNS 개설 노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관악구 거주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지리적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악구 내 공공도서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부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거나, 인근 자치구 내 오프라인 심층 상담 혹은 청년활동 공간 사용이 가능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들 간의 역할이 상호 협력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카페는 스터디 공간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청년공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므로, 청년 외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감수성을 지닌 운영자 배치 없이 유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부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양적 확충은 이뤘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공백을 매우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조정 및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격차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청년공간을 궁극적으로는 자치구별로 한 개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청년공간 확대 시 이 연구의 자치구별 지리적 접근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접근성 간극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년공간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inside/outside 분석 결과도 보조적인 결과로 참고하여,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한다면, 청년고용복지서비스의 자치구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 외 지리적 특성, 교통환경 등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자치구별 청년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수와 서비스기관의 분포 간의 간극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강북지역 등 특정 자치구들의 경우 본래 지형이 경사졌다거나, 청년 거주지역이 역세권보다 골목 안쪽에 주로 위치하는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연구에서 지리적 접근성 파악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한 inside/outside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outside에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 자치구별 청년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하는지는 자치구별 행정전문가의 조언과 청년들의 의견 청취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고용복지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학생 등)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취업자는 이직 및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잠재 수요자로 여길 수 있고 실업자는 직접적인 수요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도 당장은 구직 의사는 없을 수 있지만 잠재적인 구직자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서비스의 수요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청년(20-34)을 정책수요로 간주하여, 이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지리적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유동인구 등을 gap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보다 세분화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청년고용복지 서비스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네 개 기관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분석하여 분석 데이터수가 적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 4개 방향을 기반으로, 청년가구 거주지,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지리적 접근성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면, 도시행정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향후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들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및 지리적/심리적 접근성 비교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확충이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에게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심리적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 간의 비교 및 관계 연구를 한다면 청년고용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보다 더 다각도에서 제고시키는 데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재성·김강호·정동열·양찬주, 2019, 「해의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연구: 온오프라인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금융위원회, 2017, 「청년·대학생 금융실태 조사」.
- 김고은, 2016,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일본] 일본의 청년 고용 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the HRD review」, 18(1): 98~114.
- 김선기·천주희·최태섭·최혁규, 2019, 「통계로 본 서울 청년의 삶 연구보고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김진하·황민영, 2019, "서울시 청년층 이직·재취업 특성과 청년실업의 정책 시사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101.
- 마시현·오철환·김주영, 2018, 「서울시 취약계층 노인의 분포와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2018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 박세경, 2014,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별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보건복지포럼」, 216: 65~82.
- 박진규·김인, 2016,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과 정책점 함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191~221.
- 변미리·박민진·김진아, 2017,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2020,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KT BigData 사업지원단, 2018, 「서울 생활인구추계 매뉴얼」.
- 유길상, 2006,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추세와 시사점 -호주,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4): 1~25.
- 유해연·박연정, 2019, "서울시 청년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5(5): 31~40.

- 윤윤규, 2014, “선진국 지역고용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12(1): 1~7.
- 이용원·박주로·임병훈, 201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이철선·김문길·임성은, 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임성은, 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2019,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장수지, 2017, “지리적 접근성과 도시노인의 정신건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5): 11~19.
- 정동열·고재성·변정현·전예원·현우영, 2016,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국제 비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동열·고재성·최지원, 2018,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 는, 나라밖 청년고용지원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 정진철·이건남·홍성표·박보람, 2018, 「청년취업진로 및 전 달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고용노동부.
- 정진철·홍성표·박보람, 2020, “다차원적도법을 활용한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 포지셔닝 연구”, 『직업과 자격연구』, 9(1): 165~189.
- 청년허브, 2017, 「청년보장포럼 자료집」.
- 통계청, 2020, 「12월 고용동향」.
- CEDEFOP, *2018 European Skills Index*, 2018, CEDEFOP
- Levesque, J-F., Harris, M.F., and Russell, G., 2013, “Patient-centered access to health care: conceptualising access at the interface of health systems and populations”,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2: 1~8.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046호, 2019)

서비스).

- <http://job.seoul.go.kr>(서울일자리포털).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70619](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70619).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4월 고용동향).
- <https://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
- <https://www.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
- <https://www.workplus.go.k>(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10월 8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1년 2월 4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1년 3월 9일**

<https://bigdata.seoul.go.kr>(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https://data.seoul.go.kr>(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통계